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57)(4/23/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7 장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려야 함, 4-5 절

창 22:12 -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고후 4:16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마 6:33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4.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는 하지만, 몇 가지 예외를 남겨 놓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가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지만, 나중에 시험을 만나 힘들어지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미덕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 먼저 그들 자신을 전적으로 버리고, 날마다 그들 자신을 내게 희생 제물로 올려 드리지 않는다면, 나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에만 주어지는 참된 자유에 이를 수도 없고, 나와 기쁘게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

5. 내가 이전에 네게 자주 말하였지만, 지금도 다시 말하겠다. 너를 버리고, 너를 내려 놓으라. 그러면, 내면의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며,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말라.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는 나를 갖게 될 것이고, 네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어둠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자신을 주장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비워진 채로, 너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신 예수님을 따르고, 네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나에게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 오직 이 일에 힘쓰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이 일을 소원하라. 그러면, 너를 괴롭히던 온갖 망상들과 혼란함들과 쓸데없는 염려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과도한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며, 무절제한 사랑도 없어질 것이다.

말씀과 해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비워 내는 것이며, 동시에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내려 놓지 않으면 안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나를 내려 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 그 이유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1)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와 관련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 놓지 못하고 나의 어떤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 많은 인간은 믿는 것 같지만 의혹을 품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무엇인가 다른 궁리를 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 같다가도 다른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 받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완벽하며 분명히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도 바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며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인정해 주셨다. **창 22:12 -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

(2)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베어 있는 죄악의 본성과 정욕 때문이다. 타락한 본성과 정욕은 내 안에 뿌리 내린 못된 습성과도 같다. 한 번 잘못된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어렵고 그 습관이 우리를 다스리듯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죄성과 정욕도 마치 습관처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 놓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의 기질, 성향, 성격의 부분까지 다스리고 제거해 가는 것을 포함하는데, 내 안에 뿌리 박힌 성향을 제어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성경은 중생이란 다시 태어나듯이 새로워지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한 근본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고후 4:16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 5:17 -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변화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 된다. 변화와 성숙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한 변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성도들의 거룩한 변화를 성화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성화는 평생의 과정임을 가르쳤다. 그렇다. 주의 백성들은 평생 변화하고 성숙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계속하며 보다 완성된 모습의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3)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자신을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자아를 가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 밖에 없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은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복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별반 차이가 없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 잘 안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것의 초점, 중심, 목적이 나 자신일 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기 부인은 매우 어려워진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중의 하나는 목적, 관심, 초점, 지향점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기라는 것이다. 나를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주로 생각할 때 나를 내려 놓을 수 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 나의 인간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 유익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온전히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다 깊이 그리고 제대로 만나는 복을 주신다. **욥 42:5 -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의 뜻 안에서 얻게 하신다. **마 6:33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 놓고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신다. **마 19:27-29 -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으며, 낮아지면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지는 은혜,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구할 때 모든 것이 함께 해결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평생토록 진정한 자기 부인을 실천함으로 영적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속히 종식시켜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허락 하옵소서.
3. 전쟁, 테러, 질병, 가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